

애착의 지속성에 관한 단기종단적 연구:
영아기의 낯선상황 애착유형과 유아기의 애착안정성

The Stability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Child-Mother
Attachment across 3 Year Periods

박 응 임*

Park, Ung Im

유 명 희**

Yoo, Myoung Hee

ABSTRACT

This article reports the developmental stability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children's attachment qualities with their mothers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preschoolers' attachment security to mothers and maternal parenting behavior. 24 infants were observed with mothers in the Strange Situation to assess the infant-mother attachment patterns at 16 months of age. After 3 years, attachment security was assessed using Attachment Q-Set, and the modified IPBI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Mother Form) was administered to mothers to assess their parenting behavior.

Analyse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attachment security scores by infancy attachment patterns. That is 11 of 12 children's attachment to mothers qualities were stable across the 3 year periods. The attachment security scores related positively to the responsive maternal parenting behavior. Changes in child-mother attachment quality over time were related to maternal responsiveness. Collectively, these findings were consistent with predictions from attachment theory.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애착연구에서 진화론적 관점의 Bowlby 연구, Lorenz의 각인현상 연구, Harlow의 연구, 그리고 Robert Hinde의 연구 등은 인간과 다른 영장류의 애착 행동의 유사성과 개념이해에 공헌하였

* 안동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사

고, Freud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어머니와 유아의 애착관계가 전생애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본 점은 애착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를 중요문제로 제기하였다. Bowlby가 주창하고 Ainsworth에 의해 발전된 애착이론(attachment theory)에서도 영아기에 주요육자에게 형성한 애착의 질은 성인기의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실증적 연구들에서도 이런 가정이 지지되고 있는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애착의 지속성은 애착의 질적 특성을 알아내는 것 이상으로 연구자들의 관심을 끈다. 그러나 실제로 애착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는 연구방법론의 제한점으로 인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Ainsworth는 애착연구의 방법론에서 영아의 애착행동은 평가하기보다는 측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낮선상황의 실험실을 고안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난 어머니와의 재결합시의 영아의 행동을 중심으로 영아의 애착유형을 분류하였다. 또 최근의 연구에서는 실험실 상황의 한계를 탈피한 보다 자연적 상황에서의 애착행동을 관찰하기 위하여 집에서 어머니-영아의 애착관계를 관찰하므로써 어머니-영아간 애착관계의 질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가정방문을 통한 관찰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애착과의 관계를 다양한 상황에서 분석할 수 있다(Ainsworth, 1995).

한편 Ainsworth의 낮선상황은 영아기에만 사용 가능하므로 발달적 변화와 지속성을 알아볼 수 없고, 양적인 자료가 아니라 분류적 자료이므로 다차원적 평가를 위한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Waters와 Deane(1985)은 이와 같은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아동초기까지 적용 가능한 애착 Q-set(AQS)을 개발하였다. Vaughn과 Waters(1990)는 AQS가 애착이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만들어졌지만, 낮

선상황과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만 1세의 동일한 영아를 대상으로 낮선상황검사와 AQS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들간의 개념적 유사성을 밝히면서, AQS도 애착이론 모델에 적합한 애착 측정방법이며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Main과 Cassidy(1988)는 5~6세 아동의 애착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Ainsworth의 낮선상황을 수정하여 실험실내에서 행해지는 애착측정방법을 소개하였다.

이상과 같이 기존의 애착측정방법이 지니고 있던 제한점들을 보완한 새로운 측정방법이 등장함으로써 인해 애착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가 가능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제약점들로 인해 애착의 지속성에 관한 종단적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최근까지의 애착연구를 종합해 보면 애착연구의 본질적 특성 및 애착 유형 분류연구와 애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환경과 상호작용 하는 애착의 질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특히 민감성의 문제 그리고 아동자신의 행동특성인 기질적 차원과 애착과의 관계가 주로 연구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Ainsworth의 낮선상황 실험을 통한 애착유형 분류연구(유효순, 1993; 이영환, 1993; 박용임, 1994)가 이루어졌으며 애착유형과 기질과의 관계(이영환, 1993; 홍계옥, 1994; 박용임, 1994), 애착유형 및 애착안정성과 양육행동과의 관계(이영환, 1992; 이정희, 1993; 홍계옥, 1994; 박용임, 1994), 영아를 대상으로 낮선상황 실험의 애착유형과 애착 Q-set에 의한 애착행동 특성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나유미, 1996), 그리고 유아-아버지간 실험실 애착유형과 가정에서의 애착 안정성(이영환, 1996)의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국내의 경우 이와 같이 애착과 그 관련변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와 애착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이다. 실제 애착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는 유아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이영환(1996)의 연구에 국한된다. 다른 어떤 애착관계보다 선행하여 형성되는 가장 기본적인 애착관계라고 할 수 있는 아동과 어머니간의 애착의 지속성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어머니와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방법론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애착의 지속성에 관한 몇몇 국외연구(Thompson, Lamb, & Esters, 1982; Vaughn, Egeland, Sroufe, & Waters, 1979)에서 애착유형의 변화를 양육환경의 변화와 관계지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양육환경 중 애착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직접적인 변화 요인으로 고려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 변인 연구(박응임, 1995)에서 제시되었던 낯선상황 실험에서 분류된 애착유형과 AQS의 방법으로 측정되었을 때의 애착안정성간에 발달적 지속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애착의 지속성과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관련변인으로 애착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16개월 때 낯선상황에서의 영아의 애착유형과 4세 때 AQS로 측정된 유아의 애착안정성은 지속성이 있는가?

연구문제 2: 4세 때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관계가 있는가?

II. 선행연구 고찰

1. 애착의 지속성

Bowlby와 Ainsworth가 체계화하고 발전시킨 애착이론(attachment theory)에서는 내적작업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의 개념을 통해 애착의 지속성을 가정하고 있다. 내적 작업 모델이란 한 개인이 세상과 자신에 대해 갖는 의식적이며 무의식적인 정신적 표상으로, 이는 사건을 지각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자신의 계획을 구성해 나가는데 도움을 준다(박응임, 1995). 내적작업모델은 아동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아동 자신의 행동들, 그리고 아동 자신의 행동에 대한 외부의 피드백 등에 의해 형성된다(Bretherton, Ridgeway, & Cassidy, 1990). 내적작업모델의 기초는 생후 첫 1년 동안에 형성되며, 이는 한번 조직되면 쉽게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외부세계를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Main, Kaplan, & Cassidy, 1985). 비록 애착을 외현적으로 나타내는 애착행동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따라 변화하며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만, 애착 그 자체는 지속적 감정 및 정서적 유대로 전생애를 통해 안정적인 성향을 나타낸다(Ainsworth, 1982; Easterbrooks, & Goldberg, 1990). 따라서 어렸을 때 주양육자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한 영아는 성인이 되었을 때 다른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특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이상을 통해서 볼 때 애착이론은 애착의 발달적 지속성을 중요한 가정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가정은 다음의 몇몇 실증적 연구들을 통해 지지되고 있다. Waters(1978)는 50명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12개월과 18개월에 낯선상황 실험을 사용하여 영아-어머니간의 애착

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영아의 애착유형은 50명 중 48명이 18개월에 그 이전과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뚜렷한 애착의 지속성을 나타내었다. Main과 Weston(1981)은 영아가 12개월 때 낯선상황을 통해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을 알아보았다. 이 연구의 후속연구로 Main과 Cassidy(1988)는 동일한 연구대상을 사용하여 6세 때 수정된 낯선상황을 통해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전체의 84%가 1세 때와 6세 때 동일한 애착유형으로 분류되어, 애착의 지속성을 보고하였다. 중류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Cohn(1990)의 연구에서도 영아기의 애착이 6세에 지속되는 경향은 84%로 높게 나타났다. Howes와 Hamilton(1992)은 동일 유아를 대상으로 12개월과 48개월에 각각 애착유형을 측정 한 결과, 72%의 유아가 같은 애착유형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정애착(89%)과 양가적 애착(73%)의 지속성이 회피애착(54%) 보다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Wartner, Grossmann, Fremmer-Bombik과 Gerhard(1994)는 5년간의 단기 종단적 연구에서 1세 때의 애착유형과 6세 때의 애착유형간의 일치도가 82%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모든 연구 결과가 애착의 발달적 지속성 가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Thompson, Lamb와 Easters(1982) 등이 43명의 중류층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12개월에서 19개월 사이에 거의 반에 해당하는 아동이 애착유형이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어머니의 취업 등으로 인한 아동의 양육환경의 변화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10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Vahugn, Egeland, Sroufe 및 Waters(1979) 연구에서도 12개월 때 안정애착아가 18개월 때 불안정 애착아로 변화하였다. 연구자들은 그 원인으로 어머니

의 생활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영환(1996)의 연구에서는 유아와 아버지의 애착관계가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나 12개월 때 낯선 상황을 통해 실시한 애착 유형은 30개월 때 애착 Q-set으로 측정한 애착 안정성을 70% 예측하였다. 12개월 때 안정 애착을 보였으나 30개월 때 불안정 애착관계를 보인 유아 3명 중 2명은 양육 환경의 변화가 있었지만 관계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애착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애착과 관련된 변인들의 영향도 많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insworth는 Uganda 연구를 통해서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안전기저를 추구하려는 애착적 행동의 욕구는 다른 영장류와 같지만, 인간의 애착행동은 생태학적인 환경의 맥락에서 애착적 행동과 이와 상호작용 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인과관계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Ainsworth, Marvin, 1995). 이를 통해서 볼 때 애착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안정적이고 일관된 양육행동을 관련지어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2. 애착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Ainsworth는 Uganda와 Baltimore의 관찰 연구를 통해 어머니 양육행동의 본질 특히 민감성과 애착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여기에서 어머니의 민감성이란 다른 것보다 특히 영아의 신호에 민감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과거연구(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Belsky, Taylor, & Rovine, 1984)에서 어머니의 민감성은 얼굴을 마주보면서 수유를 하는 식으로 상호작용 속에서 어머니가 기꺼이 응해주는

능력을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미시적 상호작용이고 오히려 아이의 신체발달이 이루어진 후 영아의 안정적 기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민감성이 더 의미 있다고 보았다.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에서 어머니의 민감한 반응은 유아의 안전기저로서 효과적이고, 어머니를 안전기저로 사용하는 유아는 어머니와 접근을 유지하면서 애정적인 공유도 하고 어머니도 유아의 욕구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유용한 태도를 보인다 (Ainsworth et. al., 1978).

아이의 요구는 이미 기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아이의 요구와 이에 반응하는 어머니의 민감성은 어머니-유아의 상호작용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 어머니의 민감성과 유아의 애착안정성과의 관계는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어머니의 행동 특성의 의미를 좀 더 다양한 상황에서 보기 위해서 Pederson과 Moran(1995)은 Q-Sort 방법으로 어머니의 민감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이들은 애착 Q-set(AQS)을 모델로 삼아 애착과 관련성을 갖는 상호작용에 중점을 둔 90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가정에서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 관찰을 통해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자료를 얻어 어머니 행동 Q-set(Maternal Behavior Q-set)을 작성하였다. 이 연구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MBQS에서 얻어진 어머니의 민감성 점수는 AQS로 측정한 유아의 애착 안정성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r=.52$)를 보였다.

Ainsworth 등(1978)의 연구에서 접근추구와 거리를 두고 탐색하려는 행동의 적절한 균형 유지가 영아 행동의 목적이다. 어머니에게 접근하고자 하는 행동과 거리를 두고 탐색하려는 행동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내적 전환의 중재과정으로 애착이라는 안전기저가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유대감으로 인해 영아가 불안 없이 어머니를 안전기저로 이용함으로써 탐색과 접근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nsworth 등(1978)은 생후 1년 동안 영아가 어머니와 형성하는 애착 경험이 애착유형의 전제가 된다고 보고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을 주요 연구변인으로 삼았다. 양육에서의 민감성은 욕구에 적절히 반응하는 것, 반응의 즉각성, 관심의 융통성, 갈등상황의 중재 그리고 적절한 행동 조절 등 다각적으로 민감성을 평가하였다. 즉 민감성은 애정, 온정성과 같은 의미가 아니고, 유아의 신호를 정확히 읽고 반응해 주는 것이며 양육자가 발달단계에 따른 아동의 행동을 이해하고, 여기에 맞게 적절하고 융통성 있게 적응해 나가는 기술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Ainsworth는 최근의 한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Ainsworth, & Marvin, 1995).

따라서 애착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할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인가 비애정적인가 하는 식의 긍정 혹은 부정의 의미를 지닌 단일차원이 아니라, 온정, 애정, 민감성 및 반응성 등의 다양한 차원으로 이루어진 양육행동척도를 사용하여 애착과 이들간의 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24쌍의 어머니와 유아는 박응임(1995)의 낯선상황실험에 참여했던 연구대상 중 일부이다. 1차 연구에 참여했을 때 이들 유아의 평균 연령은 만 16개월이었고, 이로부터 3년 후에 후속 연구를 실시하였을 때 이들의 평

균 연령은 만 4세를 조금 지난 52개월(전체범위는 50개월~56개월)이었다. 1차 연구에서 만 16개월 전후의 영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영아의 애착측정을 위한 Ainsworth의 낯선상황이 만 12~18개월의 영아에게 적용 가능하고, 12개월 이후의 월령이 높은 영아가 애착대상에 대한 접촉추구행동, 접촉유지행동, 원거리 상호작용 등의 애착행동을 구체화시키므로 관찰과 분석에 더 적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영아가 만 4세가 지났을 때 후속연구를 실시한 것은 발달단계에서 이들이 영유아기를 지나 아동 초기에 속한 시기이므로 다른 발달단계에서도 애착의 특성이 지속성을 나타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1차연구에 참여했던 영아와 어머니는 모두 55명이었으며, 이들 중 43명(78.2%)이 안정 애착 유형이었고, 9명(16.4%)이 불안-회피 애착유형이었으며, 불안-저항애착과 비조직적/비일관적 애착은 각각 1명(1.8%)과 2명(3.6%)으로 나타났다.

1차 연구에서 안정 애착아로 밝혀진 영아에 비해 불안정 애착아로 밝혀진 영아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어서, 후속연구에서는 불안정 애착아로 분류된 유아들이 가능하면 누락되지 않도록 추적하여 접촉한 결과, 전체 13명중 8명이 후속연구에 참여하였다. 각각 1명과 2명이었던 불안-저항 애착아와 비조직적/비일관적 애착아는 모두 연구에 다시 참여하였고, 불안회피 애착아의 경우는 9명중 5명이 연구에 다시 참여하였다.

이에 비해 안정 애착아는 전체 43명중 16명만이 후속 연구에 참여해, 그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참여하지 않은 유아의 경우 이들이 의도적으로 불참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이사 혹

은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재접촉이 불가능해서 나타난 결과로 연구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전체 24명의 연구대상 유아 중 남아는 11명, 여아는 13명이었다. 본 연구와 동일한 연구대상을 연구한 박응임과 박성연(1994)의 연구 결과, 영아의 성별, 월령에 따른 애착유형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유아의 어머니는 모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이상이었고,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2.2세였으며, 3명의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었고 나머지 21명은 전업주부였다.

2. 측정도구 및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대표적인 측정도구는 영아기때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한 낯선 상황 검사와 유아기 때 애착측정을 위한 애착 Q-set(AQS),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어머니 양육행동 질문지 등이 포함된다.

1) 낯선상황실험¹⁾

어머니에 대한 영아의 애착은 Ainsworth 등(1978)이 개발한 낯선상황(strange situation) 실험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실험실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예비실험 결과 실험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나라 영아와 어머니의 특성과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본 실험에서는 일부 장면의 진행과정 및 시간 그리고 실험실 내의 상황을 수정하였다. 이와 같은 실험의 전 과정은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하였다.

1) 낯선상황실험과 애착유형분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박응임(1995)의 연구를 참조할 것.

영아의 애착유형 분류는 본 연구자 2명과 아동학 전문가 1명이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관찰의 훈련을 거친 후, 각자 따로 분석과정에 임했다. 이때 영아의 애착유형은 안정 애착유형(B), 불안-회피 애착유형(A), 불안-저항 애착유형(C), 그리고 비조직적/비일관적 애착유형(D)으로 분류되며, 관찰자간 신뢰도는 .95로 나타났다.

애착유형분류는 다른 분석과정과 달리 영아를 단지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해야 하므로, 관찰자들 간에 불일치한 경우에는 각자 비디오 테이프를 다시 보면서, 재분류하여 이견을 조정한 뒤 100%의 일치를 얻어냈다.

2) 애착 Q-Set(AQS)

후속연구에서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애착은 Waters(1987)의 애착 Q-Set(version 3.0)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것은 총 90장의 카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카드에는 가정과 일상적 상황에서 나타내는 영아의 구체적 행동을 기술하고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의 사용방법은 먼저 관찰자가 아동의 행동을 관찰한 후, 각 문항이 적힌 카드를 읽고 유아의 행동과 보다 유사한 문항에 높은 점수를 주고, 반대의 특성을 나타내는 문항에는 낮은 점수를 준다. 이런 식으로 분류한 문항은 모두 1점에서 9점까지 9개의 범주로 나뉘어지며, 각 범주는 모두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다.

AQS를 만든 Waters(1995)는 문항 분류 시 훈련을 거친 다수의 관찰자가 여러 번에 걸쳐 관찰한 후 AQS를 분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훈련받지 않은 관찰자가 분류하였을 때도 신뢰할만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관찰하여 AQS를 분류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어머니들에게 1

주일 정도 가정에서 자녀의 행동을 관찰하게 한 후 AQS를 분류하게 했다. 그리고 연구대상 외에 몇몇 유아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한 결과, 분류과정에서 처음부터 90장의 카드를 9개의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힘든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분류를 두 단계로 나누고, 1단계 분류에서 세 범주로 문항을 분류하고, 2단계에서 이들을 각각 다시 세 범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AQS와 분류방법에 관한 사항은 우편을 통해 연구대상 어머니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우편물이 도착한 후 각 어머니들에게 전화를 걸어 의문사항을 묻고 주의사항을 다시 한 번 전달하였다. 이와 같은 식으로 분류가 끝난 AQS 결과는 개별적으로 우편을 통해 회수하였다.

유아의 애착안정성 점수는 분류에서 얻어진 각 문항의 해당 점수가 아니라 이 점수와 표준점수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여 얻어낸다. Waters와 Deane(1985)은 몇 명의 애착 전문가들에게 가장 안정된 유아를 가정하고 AQS를 분류하게 한 다음, 여기서 나온 점수를 토대로 표준점수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에게서 회수한 AQS 분류 점수와 Waters(1995)가 제시하는 표준점수간의 상관관계를 각 유아마다 산출하여 애착안정성 점수로 사용하였다.

3)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는 아이오아 부모양육행동 척도(IPBI: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Mother Form)을 번안·수정한 홍계옥(1994)의 척도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합리적 지도, 한계설정, 애정성과 반응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고,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65~.83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합리적 지도는 자녀에게 수용 가능한 행동과 수용될 수 없는 행동의 이유를 밝혀주고,

그 이유를 자녀와 함께 생각해보는 양육행동을 말한다. 한계설정은 자녀의 생활에 제한을 정해두고 제한영역을 제시하며 이를 실행하는 양육행동을 나타낸다. 그리고 애정성이란 자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신체적 애정표현과 친밀성을 표현하는 양육행동들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반응성이란 자녀가 다쳤거나 괴로움을 나타낼 때 어머니가 자신의 일을 중단하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해주는 행동들을 나타낸다.

앞서 선행연구고찰과 애착이론에서 나타나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애착과 유의한 관련성을 갖는 것은 애정과 온정 등이 아니라 민감성 및 반응성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다른 척도들에 비해 애정성, 반응성의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본 척도가 애착이론을 검증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선정하였다.

IV. 연구결과

1. 애착의 지속성

본 연구 대상 유아들에게서 애착의 지속성이 나타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영아기때 낯선 상황에서 측정한 각 애착유형별로 유아기 때의 애착안정성 점수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영아기때의 애착유형에 따라 유아기 때의 애착안정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511, p < .05$). 그리고 각 하위집단별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안정 애착유형이 불안-회피 애착유형과 불안-저항 애착유형보다 애착 안정성 점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영아기의 애착유형에 따른 유아기의 애착 안정성 점수의 F 검증 ($N=24$)

애착유형	B	A	C	D
애착안정성	($n=16$)	($n=5$)	($n=1$)	($n=2$)
평균	.440	.263	.048	.220
(표준편차)	(.157)	(.145)		(.293)
F	3.511*			
Duncan	B>A, C			

* $p < .05$

불안저항 애착유형과 비조직적/비일관적 애착 유형의 경우 각각 1명과 2명으로 그 수가 적어 영아기때의 애착유형을 각 하위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안정애착집단과 불안애착집단으로 구분한 후 이에 따른 유아기 때의 애착안정성 점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안정애착집단이 불안애착집단에 비해 애착안정성 점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2>).

<표 2> 영아기의 애착집단에 따른 유아기의 애착 안정성 점수의 t 검증 ($N=24$)

애착집단에 착안정성	안정애착	불안애착	t
평균	.440	.225	
(표준편차)	(.157)	(.172)	.306**

** $p < .01$

그러나 AQS를 통해서 얻은 애착안정성 점수는 낯선상황실험에서의 애착유형처럼 분류적 자료가 아니라 양적 자료이므로 이것을 통해 유아기 때의 애착유형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위에서 제시된 각 애착유형별 혹은 애착집단별 애착안정성 점수의 차이만으로는 전체적인 애착의 지속성 경향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지, 각 개인별 애착지속성의 여부는 말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각 아동별로 영아기때의 애착유형과 유아기 때의 애착안정성 점수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표 3).

그 결과 영아기때 안정애착집단에 속한 유아들이 불안애착집단에 속한 유아에 비해 애착안정성 점수 분포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애착안정성 점수 분포에서 상위 25%와 하위

25%를 추출하여 이들을 비교해 본 결과, 상위 25%는 모두(6명)가 영아기때 애착유형이 안정 애착으로 나타나 반면, 하위25%중 5명은 영아기 때 애착유형이 불안애착(3명의 불안-회피 애착 유형, 각각 1명씩의 불안-저항 애착유형과 비조직적/비일관적 애착유형)이었고 단지 1명만이 안정애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표 3〉 영아기의 애착유형과 유아기의 애착안정성 점수

번호	애착유형	애착안정성	번호	애착유형	애착안정성
1	안정애착	[블랙박스]	13	안정애착	.2822
2	안정애착		14	안정애착	.2665
3	안정애착		15	안정애착	.2295
4	안정애착		16	안정애착	.1493
5	안정애착		17	불안-회피애착	.4911
6	안정애착		18	불안-회피애착	.2984
7	안정애착	.5046	19	불안-회피애착	.2127
8	안정애착	.4911	20	불안-회피애착	.2054
9	안정애착	.4680	21	불안-회피애착	.1054
10	안정애착	.4200	22	불안-저항애착	.0482
11	안정애착	.3577	23	비조직적/비일관적 애착	.0131
12	안정애착	.3103	24	비조직적/비일관적 애착	.4277
애착안정성 평균: .368			표준편차: .189		

※ [블랙박스] 안은 AQS로 측정된 애착안정성 점수가 상위 25%에 속하는 유아의 점수

[흰박스] 안은 AQS로 측정된 애착안정성 점수가 하위 25%에 속하는 유아의 점수

이상을 통해서 볼 때, 비록 애착안정성 점수로 애착유형을 알아낼 수 없지만, 애착안정성 점수가 상위 25%에 속한다면 이것은 안정적인 애착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위 25%에 속한다면 불안정한 애착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12명의 유아 중 92%에 달하는 11명의 유아가 동일한 애착특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애착이론과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애착의 지속성 가

정을 지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2. 애착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위의 애착지속성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애착 지속성과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관련변인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애착 이론에서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반응성이 애정성보다 애착과 더 밀접

한 관계를 나타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애착안정성 점수와 어머니 양육행동의 각 하위요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표 4).

〈표 4〉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어머니 양육행동간의 상관관계

하위요인	합리적지도	한계설정	애정성	반응성
애착안정성	.388 ($p=.061$)	.276 ($p=.192$)	.345 ($p=.098$)	.409* ($p=.047$)

* $p < .05$

그 결과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나 바와 마찬가지로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유의한 관계를 갖는 하위요인은 반응성($r=.409, p < .05$)으로 밝혀졌다. 즉, 자녀의 신호, 특히 아프거나 다쳐서 자신의 괴로움을 표현했을 때 어머니가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낼수록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안정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머니의 애정성은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아 친밀하고 애정적인 표현을 하는 등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많고 적음에 따라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반응성을 중심으로 애착의 지속성과 변화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전체 연구대상(26명)에서 반응성의 평균은 5.80($SD=1.02$)이고, 상위 25%이내의 점수범위는 6.63이상이며 하위 25%이내의 점수범위는 5.20이하이었다.

우선 영아기때 안정 애착유형이었으나 유아기의 애착안정성 점수가 하위 25% 이내로 낮게 나타난 유아²⁾의 경우 유아기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반응성 점수가 4.75로 하위 25%이내에 속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영아기때 불안-회피 애착유형과 비조직적/비일관적 애착유형이었는데 유아기 때의 애착안정성 점수가 하위 25%이내에 속하지 않은 유아들³⁾의 경우는 어머니의 반응성 점수가 5.25, 7.00, 5.50으로 각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위25%에는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아기의 애착 특성이 영아기와 유사하지 않고 반대의 특성을 나타내는 유아들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계가 있는 것을 가정해볼 수 있다. 즉, 영아기때 안정 애착유형이었으나 유아기 때 불안정 애착의 특성을 나타내는 유아는 어머니의 반응적이지 못한 양육행동이 유아가 어머니에게 불안정하게 애착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반대로 영아기에는 불안정 애착유형이었으나 유아기에 불안정 애착의 특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지 않은 유아의 경우는 어머니의 반응성 역시 낮은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향성은 모든 유아에게서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몇몇 유아는 애착안정성은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반응성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반응성 외의 어머니 양육행동의 다른 하위요인들의 점수들이 높은 것도 아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반응성은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안정성과 유의한 관계를 갖기는 하지만 애착의 지속성과 변화를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단기 종단적 연구를 통하여 애

2) 앞의 〈표 3〉에서 16번 유아

3) 앞의 〈표 3〉에서 17, 18, 24번 유아

착의 발달적 지속성 가정을 검증해보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애착안정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문제에 따라 밝혀진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애착의 발달적 지속성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낯선상황실험으로 측정한 영아기의 애착유형과 AQS로 측정한 유아기의 애착안정성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영아기의 애착유형에 따라 유아기의 애착안정성 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영아기에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집단은 3년이 지난 유아기에도 어머니에 대한 애착안정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AQS는 양적 자료인 점수만을 제공할 뿐 애착유형에 관한 정보는 제공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애착의 지속성을 각 유아별로 알아보기 위해서 유아기 애착안정성 점수의 빈도분석을 통해 상위 25% 이내와 하위 25% 이내에 속하는 유아들의 영아기 애착유형을 알아보았다. 이처럼 점수범위를 상 하위 25%로 정한 것은, 애착안정성 점수가 평균이상이라고 해서 안정애착이고 평균 이하이면 불안애착이라고 단정을 내릴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사실상 없다. 따라서 중간의 점수 범위를 제외하고 상위 25%와 하위 25%만을 선정했을 때는 이들 두 범위에 속한 유아의 애착안정성은 점수 차가 매우 크고 서로 전혀 다른 애착 특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위 25% 이내에 속한 유아를 안정애착집단으로, 하위 25% 이내에 속한 유아를 불안애착집단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식으로 분석해본 결과 12명의 유아 중 11명의 유아가 영아기때와 같은 특성을 지닌 애착집단으로 나타났다. 애착안정성 점수가 상위 25% 이내에 속한 유아는 영아기때에도 모두 안정 애착유형이었으며, 하위 25%에 속한 유아는 모두 6명 중 5명이 영아기때 불안 애착유형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애착지속성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Main, & Cassidy, 1988; Cohn, 1990; Howes, & Hamilton, 1992; Watner, Grossmann, Fremmer-Bombik, & Gerhard, 1994)와 유사하며 애착 지속성 가정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편이다.

그러나 영아기때 불안-회피 애착유형이었던 한 명의 유아와 비조직적/비일관적 애착유형이었던 한 명의 유아가 애착안정성 점수에서는 평균 이상으로 나타난 점들도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애착안정성 점수는 애착유형과 같은 분류적 자료가 아니므로 낯선상황실험에서 측정한 영아기의 애착유형과 관련지어 애착의 지속성을 연구하는데 제한점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유아기도 애착유형으로 애착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이와 영아기의 애착유형을 비교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Main과 Cassidy(1988)가 5~6세 아동용으로 제시한 수정된 낯선상황실험은 애착을 애착유형으로 분류 가능하게 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를 적용한 연구(홍계옥, 1994)가 있지만, 이 방법 역시 적용 가능 연령의 범위가 좁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지속성의 추이를 파악하는데 제한적이며, 실험실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연구를 실행하는데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영아기를 지닌 아동들을 대상으로 애착을 측정했을 때 양적인 자료뿐 아니라 분류적 자료도 동시에 제공해줄 수 있는 연구방법론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로, 애착의 지속성과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관련변인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평가해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보면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반응성이었다. 즉, 어머

니가 자녀에게 신체적인 애정표현을 자주 하며 친밀성을 나타내는 등의 행동보다는 자녀가 어머니를 필요로 할 때(특히, 아프거나 괴로움을 호소할 때) 자신의 일을 중단하면서라도 즉각적인 반응을 할수록 어머니에 대한 애착안정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애착이론에서 주장하는 바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행동이 애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반응적인 어머니의 행동이 긍정적인 어머니-자녀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어머니의 반응성이 유아의 애착지속성과 변화를 설명해줄 수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영아기때 애착유형이 안정 애착이었으나 유아기때 불안 애착특성을 나타낸 유아는 어머니의 반응성이 매우 낮은 것(하위 25% 이내)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영아기때 불안애착이었으나 유아기때 안정 애착특성을 나타내는 유아의 경우는 어머니의 반응성이 하위 25% 이내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증거만으로 유아의 애착특성 변화에 어머니의 반응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전체 연구대상 중에는 영아기때 안정 애착유형이었고 유아기에도 안정 애착특성을 보이지만 어머니의 반응성 점수가 낮은(하위 25% 이내) 유아도 있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애착의 지속성과 변화는 아동이 속해있는 사회적 맥락의 다양한 환경 내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 외의 다른 요인도 작용하고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애착의 지속성과 변화에 관한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위해서 다양한 양육환경 요인과 기질과 같은 아동의 개인적 특성을 함께 포함시킨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이 소수이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점이 있다. 실험연구이면서 단기 종단연구이므로 표본의 크기가 적

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24명의 연구 대상에서 얻은 결과를 전체 모집단의 애착 특성을 반영한다고 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착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3년의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종단적 연구를 통해 애착의 지속성 경향을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참고 문헌

- 나유미(1996). 한국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행동 특성.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 박용임(1994). 영아-어머니간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 박용임·박성연(1994). 낯선상황의 애착유형분류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3), 159-170.
- 유효순(1985). 애착유형과 탐색행동과의 관계.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 이영환(1993). '낯선상황'에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유형. 경희대 박사 학위 논문.
- 이영환(1996). 유아-아버지간의 실험실 애착유형과 가정에서의 애착안정성:1세 낯선상황 분류와 3세 Q-Sort 관찰. 대한가정학회지, 34(1), 177-187.
- 이정희(1993). 취업모와 자녀간 애착 안정성과 관련 변인간의 관계. 연세대 박사 논문.
- 홍계옥(1994).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 애착행동간의 관계. 고려대 박사 논문.
- Ainsworth, M. D. S. (1982). The development of infant-mother attachment. In J. Belsky(Ed.), In the beginning-Readings on infancy(135-143).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Ainsworth, M. D. S., & Marvin, R. S. (1995). On the shaping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an interview with Mary D. S. Ainsworth (Fall 1994). In E. Waters, B. E. Vaughn, G. Posada, & K. Kondo - Ikemura (Eds.), *Caregiving, cultural, and cognitive perspectives on secure-base behavior and working models—new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 60 (pp. 3-2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lsky, J., Rovine, M., & Taylor, D. (1984). The origin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ttachment: Maternal and infant contributions. *Child Development, 55*, 718-728.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I. Attachment (2d)*. New York: Basic. (Original work published 1969).
-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 (1990).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 An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for 3-year-olds. In M.T. Greenberg, D. Cicchetti, & E.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pp. 273-308).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hn, D. A. (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olds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 152-162.
- Howes, C. & Hamilton, C. E. (1992).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care teachers: Stability and concordance with parental attachments. *Child Development, 63*, 867-878.
- Main, M. & Cassidy, J. (1988). Categories of response to reunion with parent at age six: Predictable from infant attachment classifications and stable over a one-month period. *Developmental Psychology, 24*, 415-426.
- Main, M., Kaplan, N., & Cassidy, J. C.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 50 (pp. 66-104).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in, M., & Weston, D. (1981). The quality of the toddler's relationship to mother and to father: Related to conflict behavior and the readiness to establish new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52*, 932-940.
- Pederson, D. R., & Moran, G. (1995). A categorical description of infant-mother relationships in the home and its

- relation to Q-sort measures of infant-mother interaction. In E. Waters, B. E. Vaughn, G. Posada, & K. Kondo-Ikemura(Eds.). *Caregiving, cultural, and cognitive perspectives on secure-base behavior and working models-new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 60(pp. 111-132). Chicago: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homson, R. A., Lamb, M. E., & Eastes, D. (1982). Stabil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and its relationships to changing life circumstances in an unselected middle-class sample. *Child Development, 53*, 144-148.
- Vaughn, B. E., Egeland, B., L. A., & Waters, E. (1979). Individual difference in infant-mother attachment at 12 and 18 months:Stability and change in families under stress. *Child Development, 50*, 971-975.
- Vaughn, B. E., & Waters, E. (1990). Attachment behavior at home and in the laboratory:Q-sort observations and strange situation classification of one-year-olds. *Child Development, 61*, 1965-1973.
- Waters, E. (1987). *Attachment Behavior Q-set(Version 3.0)*.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Stony Brook, NY 11794.
- Waters, E. (1995). Attachment Behavior Q-set(Version 3.0). In E. Waters, B. E. Vaughn, G. Posada, & K. Kondo-Ikemura(Eds.). *Caregiving, cultural, and cognitive perspectives on secure-base behavior and working models-new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 60(pp. 234-246). Chicago: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aters, E., & Deane, K. E. (1985). Defining and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achment relationships:Q-methodology and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 50*(pp. 41-65). Chicago: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artner, U. G., Grossmann, K., Fremmer-Bombik, E., & Suess, G. (1994). Attachment patterns at age six South Germany:Predictability from infancy and implications for preschool behavior. *Child Development, 65*, 1014-1027.